

발간등록번호

2021-KIHF-120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일 시 2021. 10. 27.(수) 14:00 ~ 16:00

영상공개 2021. 11. 05.(금)

장 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13호 회의실

주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후원



여성가족부

발간등록번호

2021-KIHF-120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일 시 2021. 10. 27.(수) 14:00 ~ 16:00

영상공개 2021. 11. 05.(금)

장 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13호 회의실

주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후원



여성가족부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족포럼은 다양한 가족관련 전문가, 국민들과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정책서비스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직접 이 자리에 귀한 의견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모두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윤소영 박사님, 김옥녀 교수님, 한은주 센터장님, 윤성은 센터장님, 좌장이신 정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시청으로 포럼에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대부분이 비대면 생활양식으로 재편되었고, 우리의 가족 생활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휴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연기에 따라 가사 및 돌봄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가족서비스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정책은 코로나19의 위협에 어떻게 긴급하게 대처할 것인가에서 한 발 나아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감염병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소외되는 가족이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러한 변화의 시간 속에서 가족생활의 변화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이면서도 민감하게 파악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듬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프로그램

▷ 개회

인사말 : 김금옥 이사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발제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
- 윤소영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토론

좌 장 : 정지영 교수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토론 1]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변화 및 돌봄서비스 방향
- 김옥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토론 2]

코로나19 이후 상담 서비스 운영 방향
- 한은주 센터장 (강북구 가족센터)

[토론 3]

코로나19 이후 교육/문화 서비스 수요 및 운영 사례
- 윤성은 센터장 (구리시 가족센터)

▷ 폐회

* 목 차 Contents

[발 제]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 11

❖ 윤소영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토론 1]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변화 및 돌봄서비스 방향 41

❖ 김옥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토론 2] 코로나19 이후 상담 서비스 운영 방향 49

❖ 한은주 센터장 (강북구 가족센터)

[토론 3] 코로나19 이후 교육/문화 서비스 수요 및 운영 사례 55

❖ 윤성은 센터장 (구리시 가족센터)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발 제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

윤 소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목 차

- 1 조사 개요
- 2 분석 결과
- 3 시사점 및 제언

1. 조사 개요

- 1. 조사 배경
- 2. 조사 목적
- 3.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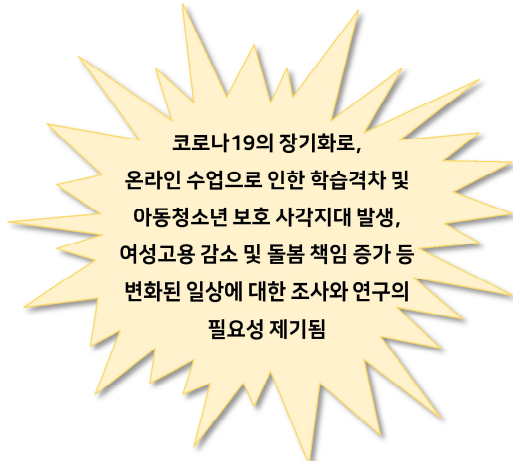
I. 조사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와 이용 변화 -> 서비스 개선

- ('20.1.20) 국내 첫 확진자 발견, 위기경보 주의
- ('20.02.23) 위기경보 '심각'(대구/경북지역)
- ('20.03.11) WHO 팬데믹 선언
- ('20.3.22~ 4.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20.4.20 ~ 5.5)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20.5.6~)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
- ('20.6월 초) 전자출입명부제도 운영
- ('20.8.15) 8.15집회 후 전국적 사회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
- ('21.10.18~10.31)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조정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하나 사적모임 기준 완화
- ('21.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및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발생,
여성고용 감소 및 돌봄 책임 증가 등
변화된 일상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 제기됨**

II. 조사 목적

[가족서비스 이용 현황과 수요를 파악한다]

- 코로나 19 이후 가족서비스 이용현황을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8가지 가족서비스별로 파악한다.
-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를 파악한다.
- 특히 비대면 서비스 전환과 관련한 수요를 파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분석한다]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다.
-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 고용 및 근무형태, 가족관계나 활동, 정서적 상태 등 관련된 변화를 분석한다.
-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희망서비스 영역을 파악한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 '20년과 비교해 결혼태도, 배우자와 공평한 분담에 대한 생각, 가족지지 의 변화를 파악한다.
- 주요 변인별로 가족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시사점을 도출하여 가족서비스의 방향 제안

III. 조사 방법

1. 조사개요

	가족서비스 조사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 대상	일반국민 1,500명 중 센터 이용 경험자 219명, 2021년 센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일반국민 1,500명 및 2021년 센터 이용자 1,000명
조사 표본	1,219명	2,500명
조사 시점	2021년 10월 2일~7일	2021년 10월 2일~7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내용	-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이용 방식 및 선호도 - 향후 가족서비스 수요 및 선호 방식 등(비대면 전환)	- 코로나19이후 가족생활의 변화(돌봄부담, 가족관계, 일상 생활 변화 등)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결혼에 대한 인식, 가족지지 등)

III. 조사 방법

2.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61.6%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음(26.8%).
- 1인가구는 7.8%였으며, 부부+자녀 3인 가구 이상이 54.3%를 차지함
- 20.2%가 다문화 가족이었으며, 8.2%가 한부모 가족이었음

전체		응답자 수(명)	비율(%)
		2,500	100.0%
성별	남성	960	38.4%
	여성	1,540	61.6%
연령	20대	365	14.6%
	30대	634	25.4%
	40대	671	26.8%
	50대	393	15.7%
	60대 이상	437	17.5%
거주 가족 구성	1인 가구	195	7.8%
	2인 가구(부부)	239	9.6%
	2인 가구(한부모)	105	4.2%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1,357	54.3%
다문화 가족 여부	3인 가구 이상(부모 등 기타)	604	24.2%
	다문화 가족	504	20.2%
한부모 가족 여부	비다문화 가족	1,996	79.8%
	한부모 가족	206	8.2%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비한부모 가족	2,294	91.8%
	있음	1,221	48.8%
		없음	51.2%

2. 분석 결과

1.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3.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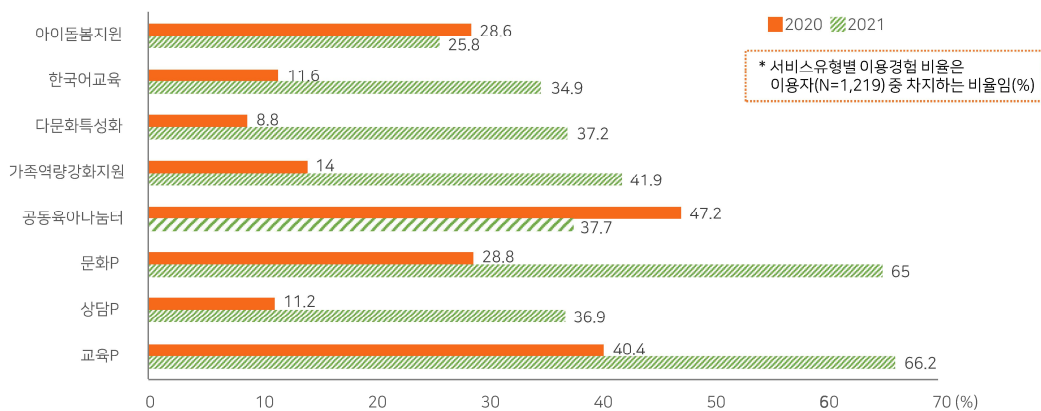
- 지난 1년간('20.08~'21.08)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사례수 대비 여성(57.4%), 30~40대(67.5%, 63.2%),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2인가구(72.4%)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이상 가구(58.8%), 다문화가족(96.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예		구분	사례수	예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전 체	2500	1219	48.8							
성별	남성	960	335	34.9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1256	515	41.0	
	여성	1540	884	57.4		임시근로자	134	75	56.0	
연령	20대	365	162	44.4		일용직·시간제/아르바이트	255	167	65.5	
	30대	634	428	67.5		자영업	179	85	47.5	
	40대	671	424	63.2		학생	64	26	40.6	
	50대	393	123	31.3		전업주부	426	281	66.0	
	60대 이상	437	82	18.8		무직	186	70	37.6	
거주 가족 구성원	1인 가구	195	22	11.3		가구 소득	하위층(300만원 미만)	767	450	58.7
	2인 가구(부부)	239	104	43.5			중위층(300~600만원 미만)	1177	541	46.0
	2인 가구(부+자녀/모+자녀)	105	76	72.4			상위층(600만원 이상)	556	228	41.0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1357	798	58.8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504	484	96.0	
	3인 가구 이상(부모 등 기타)	604	219	36.3		비다문화 가족	1996	735	3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9	273	54.7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204	99	48.5	
	대학 및 대학교	1762	831	47.2		비한부모 가족	2296	1120	48.8	
	대학원 이상	239	115	48.1		재택 근무 경험	있음	771	442	57.3
				없음	1147		479	41.8		
				해당없음	582		298	51.2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가족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유형별 이용경험(중복응답)에서, **교육 P, 문화 P 이용이 가장 높음**
- 지난 1년간('20.08~'21.08) 가족서비스 이용자 수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N=807) >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N=792) > 상담 프로그램 이용자(N=450)
 (전년대비 1.6배 증가) (전년대비 2.3배 증가) (전년대비 3.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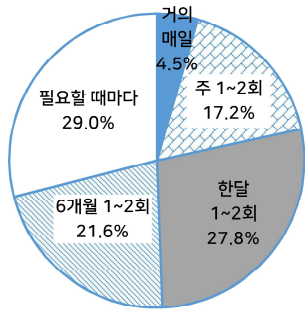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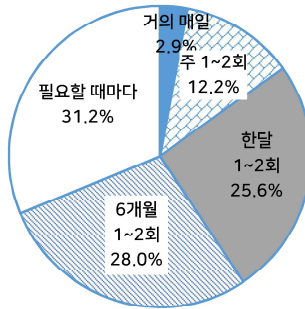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1) 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 이용

- 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 모두 필요할 때마다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29.0%, 31.2%, 29.6%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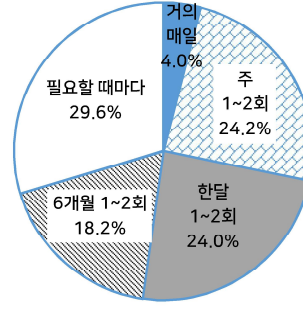
[교육p 이용 빈도]



[문화p 이용 빈도]



[상담p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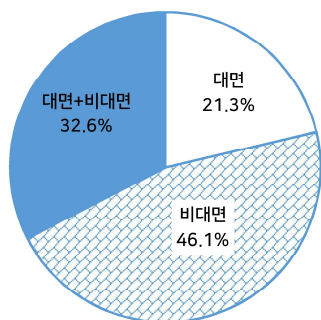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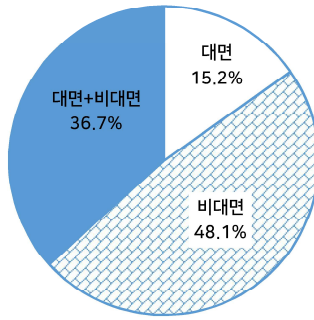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2) 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 이용 방식

- 비대면 > 대면 + 비대면 > 대면 순으로 변화
-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문화 p(48.1%) > 교육 p(46.1%) > 상담 p(35.8%)
- 대면 +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 문화 p(36.7%) > 교육 p(32.6%) > 상담 p(30.0%)
- 대면 프로그램 참여 : 상담p(34.2%) > 교육p(21.3%) > 문화 p(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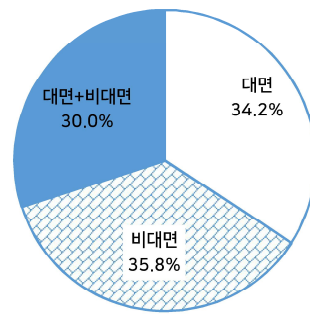
[교육P 참여 방식]



[문화P 참여 방식]



[상담P 참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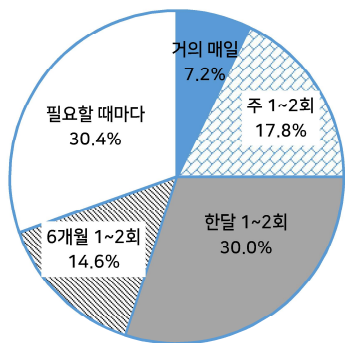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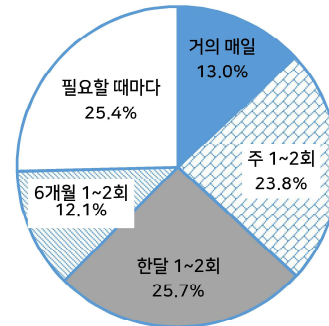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3)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지난 1년간('20.08~'21.08)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이용자(N=460),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N=315) 중
- 필요할 때 마다 이용 : 공동육아나눔터 (30.4%) > 아이돌봄서비스(25.4%)
- 한달 1~2회 이상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62.5%) > 공동육아나눔터(5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빈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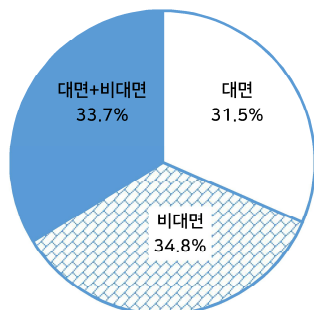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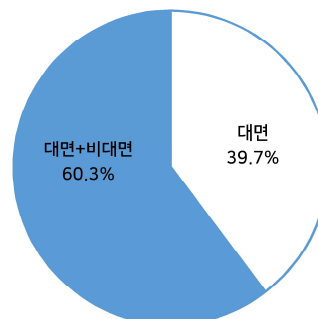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4)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식

- 아이돌봄서비스는 방문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대면+비대면 서비스제공이 60.3%로 응답하였으나, 자녀의 온라인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포괄적 응답한 것으로 추정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방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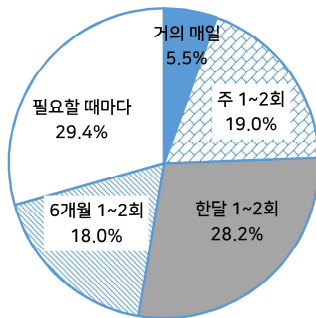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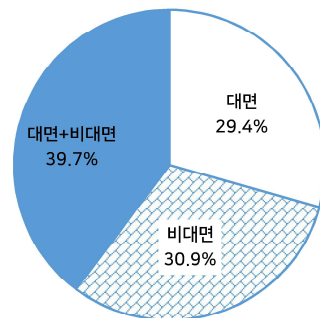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5)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지난 1년간('20.08~'21.08) 가족서비스 중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N=511)의 이용빈도는 '필요할때마다' (29.4%), '한달 1~2회'(28.2%) 순으로 나타남
- 이용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이용'한 경우(39.7%)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비대면'(30.9%), '대면'(29.4%) 순서임

[이용 빈도]



[이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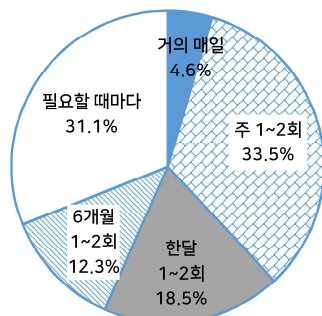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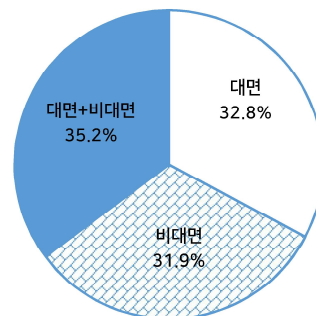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 6)다문화특성화사업

- 지난 1년간('20.08~'21.08) 가족서비스 중 다문화특성화 사업 이용자(N=454)의 이용빈도는 '주 1~2회' (33.5%)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할때마다'(31.1%) 순으로 나타남
- 이용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이용'한 경우(35.2%)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대면'(32.8%), '비대면(31.9%) 순으로 나타남

[이용 빈도]



[이용 방식]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2. 가족서비스 진행방식의 선호도

- 지난 1년간('20.08~'21.08) 센터에서 이용한 가족서비스의 진행방식에 대해 모든 프로그램에서 70% 이상 응답자들은 '선호한다'고 응답함
- 문화프로그램과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제외한 프로그램 영역에서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일때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면으로만 이용했다는 응답자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음

(빈도: 건 / 선호도: 점)

구분	전체		대면으로만 이용		비대면으로만 이용		대면과 비대면 모두 이용	
	빈도	선호도(100점)	빈도	선호도(100점)	빈도	선호도(100점)	빈도	선호도(100점)
교육프로그램	807	74.4	172	68.5	372	73.3	263	79.8
상담프로그램	450	73.5	154	71.9	161	69.1	135	80.6
문화프로그램	792	77.9	120	75.2	381	79.5	291	76.8
공동육아나눔터	460	77.3	145	78.4	160	71.7	155	82.1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511	79.6	150	81.2	158	74.8	203	82.1
다문화특성화사업	454	77.5	149	79.9	145	70.2	160	82.0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426	80.6	91	78.8	179	77.4	156	85.3
아이돌봄지원사업	315	76.7	125	79.6	-	-	190	74.9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3.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 2020년 보다 2021년 기준 이전보다 지난 1년간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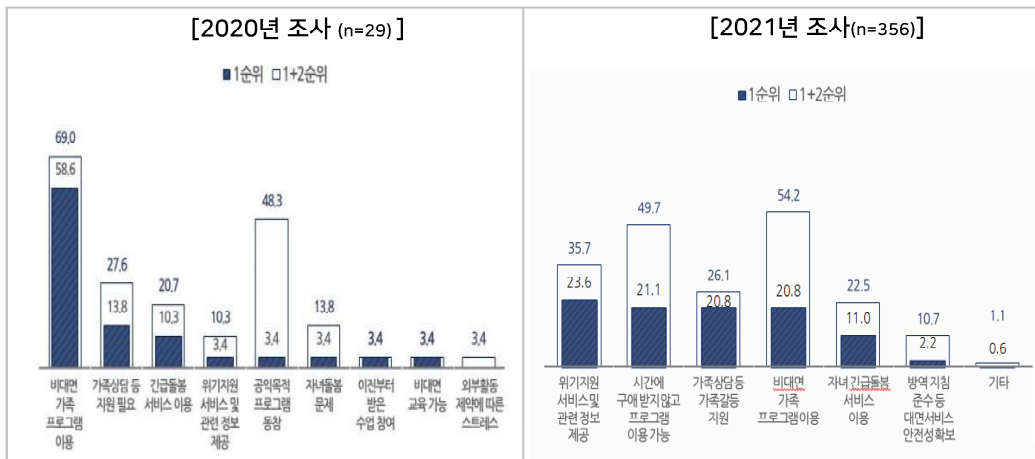
(응답 수: 명 / 응답 비율:%)

구분	사례 수 (이용경험자)	이용 빈도가 증가했다		변화가 없다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2020년 조사	404	29	7.2	61	15.1	314	77.7
2021년 조사	1219	356	29.2	347	28.5	516	42.3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3. 코로나 확산 전과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 (증가했다) '21년 조사에서는 이용빈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위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그램 이용 가능', '가족상담 등 가족갈등지원이 필요해서', '비대면 가족프로그램 이용' 의 이유도 유사한 비율을 차지함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3. 코로나 확산 전과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 (증가했다: 연령별 비교) '21년 조사에서, 20대와 50대, 60대 이상 연령대는 '생활 등 어려움이 있어 위기지원 서비스 지원이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리고 40대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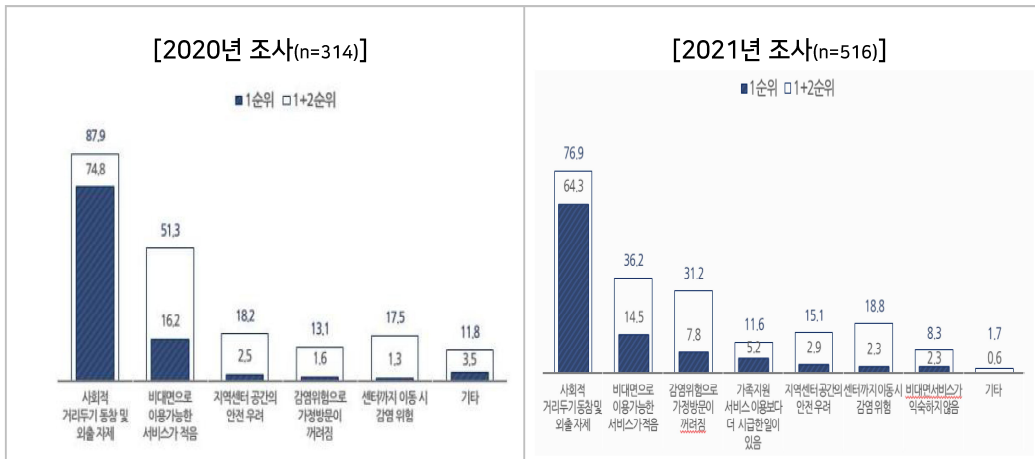
(응답 수: 명 / 응답 비율:%)

구분	연령	사례수 (N=356)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족갈등 문제로 가족상담 등 지원이 필요해서		자녀돌봄 문제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위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온라인 콘텐츠, 키트 제공 등)		센터 내 방역 지침 준수 강화 등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센터방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2021년	20대	50	8	16.0	15	30.0	4	8.0	20	40.0	2	4.0	1	2.0
	30대	133	37	27.8	27	20.3	18	13.5	24	18.0	22	16.5	5	3.8
	40대	124	27	21.8	15	12.1	9	7.3	22	17.7	47	37.9	2	1.6
	50대	20	2	10.0	6	30.0	4	20.0	6	30.0	2	10.0	0	0.0
	60대 +	29	0	0.0	11	37.9	4	13.8	12	41.4	2	6.9	0	0.0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3. 코로나 확산 전과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서' 가족서비스 이용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여전히 높음. '감염우려'나 '센터의 안전 우려' 등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됨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3. 코로나 확산 전과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의 변화

- (감소했다: 연령별 비교)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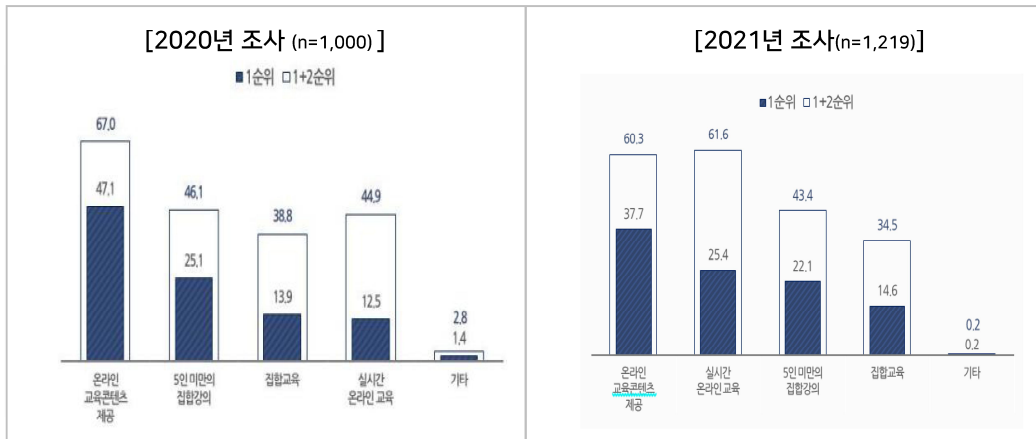
(응답 수: 명 / 응답 비율: %)

구분	연령	사례수 (N=516)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어서		지역센터 공간의 안전(방역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집으로 누군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망설여져서		센터까지 이동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있어서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응답 수	응답 비율
2021년	20대	61	38	62.3	8	13.1	2	3.3	9	14.8	1	1.6	3	4.9
	30대	185	127	68.6	15	8.1	6	3.2	15	8.1	6	3.2	11	5.9
	40대	192	118	61.5	39	20.3	7	3.6	10	5.2	4	2.1	7	3.6
	50대	49	28	57.1	8	16.3	0	0.0	5	10.2	1	2.0	4	8.2
	60대+	29	21	72.4	5	17.2	0	0.0	1	3.4	0	0.0	2	6.9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4. 선호하는 교육 서비스 방식 :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 부모교육과 한국어교육 등 교육서비스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37.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25.4%), 5인미만 집합강의(22.1%), 집합교육(14.6%) 순임. 비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높음
- 2순위까지 합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교육(61.6%)을 가장 선호함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4. 선호하는 교육 서비스 방식 :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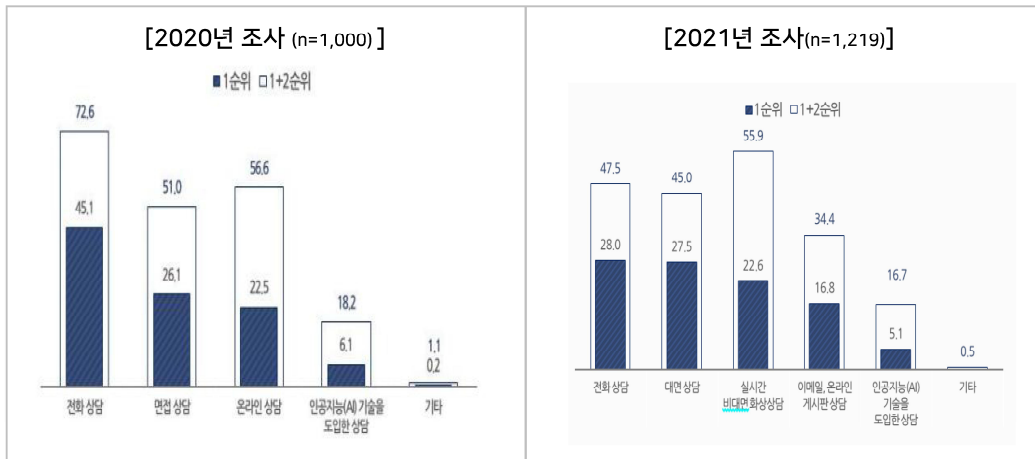
- 남녀 모두 대면보다 비대면방식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온라인콘텐츠제공,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빈도: 건 / 비율: %)

		사례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실시간 온라인 교육		5인 미만의 집합강의		집합교육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시설개편)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221	461	37.8	311	25.5	269	22.0	178	14.6	2	.2
성별	남성	337	130	38.6	89	26.4	74	22.0	43	12.8	1	.3
	여성	884	331	37.4	222	25.1	195	22.1	135	15.3	1	.1
연령	20대	163	70	42.9	37	22.7	37	22.7	19	11.7	0	0.0
	30대	428	164	38.3	106	24.8	92	21.5	66	15.4	0	0.0
	40대	425	154	36.2	103	24.2	98	23.1	68	16.0	2	.5
	50대	123	42	34.1	35	28.5	30	24.4	16	13.0	0	0.0
	60대 이상	82	31	37.8	30	36.6	12	14.6	9	11.0	0	0.0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5. 선호하는 상담 서비스 방식 : 전화상담>대면상담>비대면상담

- 부부, 부모자녀 등 상담서비스로 선호하는 방식은 전화상담이 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면상담, 실시간 비대면 화상상담, 이 메일과 온라인 게시판상담 순으로 나타남/ 2순위까지 합한 경우, 실시간 비대면 화상상담(55.9%)을 가장 선호함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5. 선호하는 상담 서비스 방식 : 전화상담>대면상담>비대면상담

- 20대(35.2%) 전화상담/ 30대(29.9%)와 40대(32.5%)는 면접상담/ 50대(26.8%) 및 60대 이상(46.3%)는 비대면 화상 상담선호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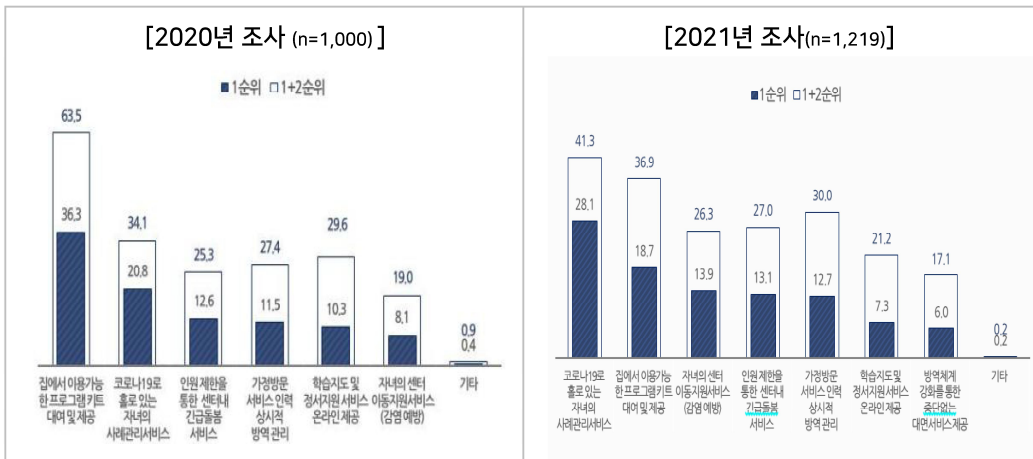
(빈도: 건 / 비율: %)

향후상담방식선호도	사례수	전화상담		대면상담(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실시간 비대면 화상상담		이메일, 온라인 게시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상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221	342	28.0	335	27.4	276	22.6	206	16.9	62	5.1	
성별	남성	337	72	21.4	73	21.7	86	25.5	83	24.6	23	6.8
	여성	884	270	30.5	262	29.6	190	21.5	123	13.9	39	4.4
연령	20대	163	57	35.0	23	14.1	29	17.8	50	30.7	4	2.5
	30대	428	122	28.5	128	29.9	89	20.8	70	16.4	19	4.4
	40대	425	123	28.9	138	32.5	87	20.5	51	12.0	26	6.1
	50대	123	27	22.0	32	26.0	33	26.8	20	16.3	11	8.9
	60대 이상	82	13	15.9	14	17.1	38	46.3	15	18.3	2	2.4

I. 가족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6. 문화프로그램, 돌봄 및 방문서비스는 자녀 사례관리 서비스 요구 많음

- 돌봄 및 방문서비스 이용시 선호하는 방식은 홀로있는 자녀의 식사, 생활지도, 학습 등의 사례관리서비스(28.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키트대여 및 제공, 자녀의 센터 이동지원 서비스, 센터내 긴급돌봄서비스 등 순임
- 자녀의 센터 이동지원서비스는 전년 대비 요구도가 증가함



I.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

6. 문화프로그램, 돌봄 및 방문서비스는 자녀 사례관리 서비스 요구 많음

- 50대의 경우 가정방문 서비스 인력의 상시적 방역관리(22.8%), 그 외 연령대는 홀로 있는 자녀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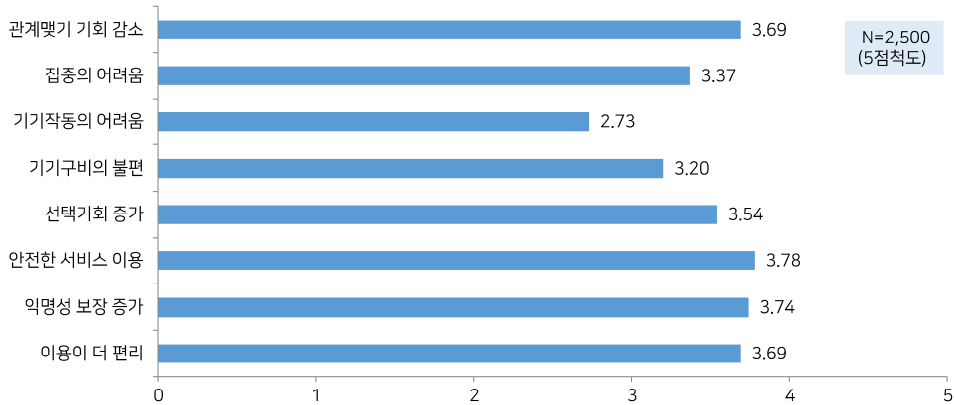
(빈도: 건 / 비율: %)

	사례수	홀로 있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키트 대여 및 제공		센터에 자녀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이동지원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인력 제한을 통한 센터내 긴급돌봄서비스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상시 방역관리 강화		방문교육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의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안전한 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중단 없는 대면서비스 운영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221	343	28.1	228	18.7	170	13.9	161	13.2	155	12.7	89	7.3	73	6.0	2	.2	
성별	남성	337	98	29.1	42	12.5	54	16.0	59	17.5	37	11.0	26	7.7	20	5.9	1	.3
	여성	884	245	27.7	186	21.0	116	13.1	102	11.5	118	13.3	63	7.1	53	6.0	1	.1
연령	20대	163	43	26.4	23	14.1	38	23.3	21	12.9	21	12.9	8	4.9	9	5.5	0	0.0
	30대	428	118	27.6	85	19.9	48	11.2	67	15.7	57	13.3	37	8.6	15	3.5	1	.2
	40대	425	130	30.6	105	24.7	46	10.8	49	11.5	39	9.2	27	6.4	28	6.6	1	.2
	50대	123	24	19.5	11	8.9	19	15.4	16	13.0	28	22.8	13	10.6	12	9.8	0	0.0
	60대 이상	82	28	34.1	4	4.9	19	23.2	8	9.8	10	12.2	4	4.9	9	11.0	0	0.0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1.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생각

- 코로나 19 확산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해, 어려움이나 불편함 보다는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3.78), 익명성(3.74), 편리성(3.69)의 장점이 더 있다고 생각함
- 혼자서 기기작동의 어려움(2.73)이나 기기를 갖추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3.2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줄어든다(3.69)는 생각은 높은 편임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돌봄 부담 증가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증가'했고 응답한 사람은 69.9%임 (해당없음 7.0% 제외)
- 가족서비스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80.4%), 여성, 40대와 30대, 일용직 및 시간/아르바이트 근로, 다문화가족, 비한부모가족, 재택근무경험자 등의 자녀 돌봄 부담 증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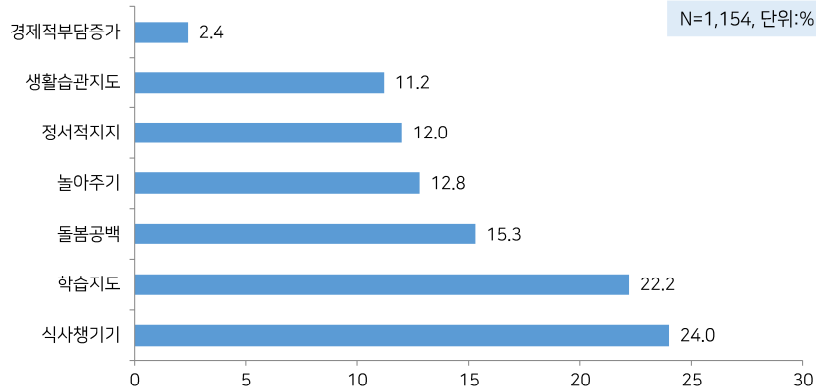
(빈도: 건 / 비율: %)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N=1650)	140	8.5	240	14.5	1154	69.9									
가족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35	3.5	127	12.6	810	80.4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66	8.0	124	15.1	590	71.8
	없음	105	16.3	113	17.6	344	53.5		임시근로자	7	8.5	14	17.1	55	67.1
성별	남성	56	10.2	88	16.1	368	67.3	일용직 및 시간/아르바이트	일용직 및 시간/아르바이트	11	6.5	21	12.5	131	78.0
	여성	84	7.6	152	13.8	786	71.3		자영업	12	9.8	22	17.9	82	66.7
연령	20대	6	5.7	17	16.2	69	65.7	가구소득	학생	0	0.0	0	0.0	7	58.3
	30대	22	5.3	66	15.9	310	74.7		전업주부	36	9.9	48	13.2	239	65.8
	40대	17	3.1	57	10.5	458	84.2		무직	8	10.0	11	13.8	50	62.5
	50대	45	14.9	55	18.2	166	54.8		하위층	29	6.5	77	17.2	307	68.7
	60대 이상	50	17.7	45	15.9	151	53.4		중위층	68	8.5	105	13.1	580	72.5
거주 가족 구성원	2인 가구(부+자녀/모+자녀)	10	9.5	16	15.2	65	61.9	다문화 가족	상위층	43	10.7	58	14.4	267	66.3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113	8.3	186	13.7	970	71.5		다문화 가족	22	5.4	65	15.9	300	73.2
	3인 가구 이상(부모 등 기타)	17	9.0	38	20.2	119	63.3		비다문화 가족	118	9.5	175	14.1	854	68.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8.1	44	13.7	215	67.0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11	11.6	13	13.7	61	64.2
	대학 및 대학교	101	8.7	173	15.0	812	70.2		비한부모 가족	129	8.3	227	14.6	1093	70.3
	대학원 이상	13	7.5	23	13.3	127	73.4		재택 근무 경험	있음	23	4.2	64	11.6	435
							없음	86		11.8	119	16.3	477	65.3	
							해당없음	31		8.4	57	15.5	242	65.8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돌봄 부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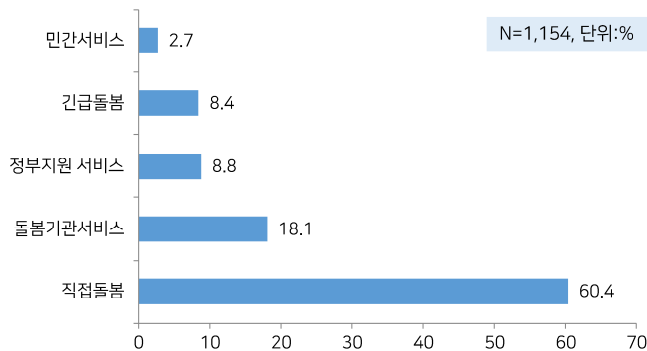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증가한 자녀돌봄의 부담 영역은, 매끼 식사 챙기기(24.0%)와 자녀의 학습지도(22.2%)이며, 그 다음으로 갑작스런 유치원 휴원과 등교중단으로 인한 돌봄공백 대처에 대한 어려움(15.3%)이 제시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대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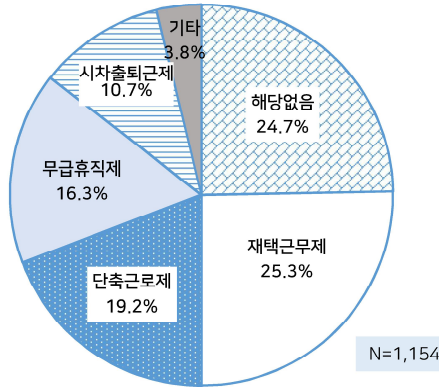
- 자녀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60.4%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 서비스를 이용(18.1%)하거나 정부지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8.8%) 순임
- 긴급돌봄 이용자도 전체(N=1,154) 중 8.4%에 해당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관련 제도 사용 경험

- 자녀돌봄과 관련해서 일터에서 제공하는 제도 사용 경험은, 재택근무제(25.3%)가 가장 많았으며, 단축근로제(19.2%), 무급휴직제(16.3%), 시차출퇴근제(10.7%) 순임(해당없음 N=285 제외)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 온라인 학습에 대해 스트레스가 증가한 사람은 59.4%임(해당없음 11.8% 제외)
-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자(67.5%), 여성(61.3%), 30대(67.0%)와 40대(72.8%), 재택근무 경험자(68.6%) 등에서 스트레스 증가가 있다는 응답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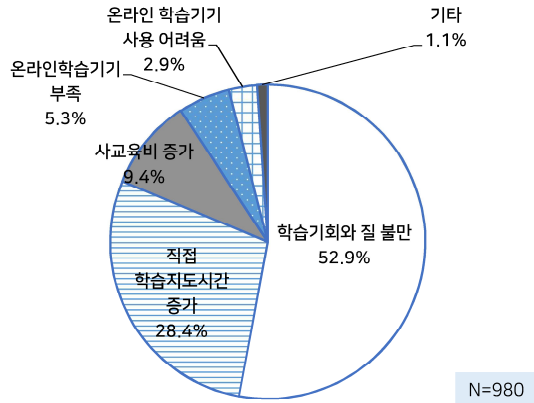
(빈도: 건 / 비율: %)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N=1650)	162	9.8	314	19.0	980	59.4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51	5.1	184	18.3	680	67.5	상용근로자	92	11.2	149	18.1	501	60.9	
	없음	111	17.3	130	20.2	300	46.7	임시근로자	12	14.6	14	17.1	49	59.8	
성별	남성	71	13.0	106	19.4	304	55.6	근로 형태	일용직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8	4.8	40	23.8	109	64.9
	여성	91	8.3	208	18.9	676	61.3		자영업	10	8.1	22	17.9	77	62.6
연령	20대	1	1.0	1	1.0	7	6.7	학생	0	0.0	1	8.3	6	50.0	
	30대	25	6.0	104	25.1	278	67.0	전업주부	31	8.5	65	17.9	204	56.2	
	40대	42	7.7	106	19.5	396	72.8	무직	9	11.3	23	28.8	34	42.5	
	50대	47	15.5	60	19.8	161	53.1	하위층	27	6.0	103	23.0	263	58.8	
거주 가족 구성원	2인 가구(부+자녀/모+자녀)	15	14.3	17	16.2	60	57.1	가구 소득	중위층	85	10.6	142	17.8	488	61.0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131	9.7	263	19.4	825	60.8		상위층	50	12.4	69	17.1	229	5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	7.5	76	23.7	151	47.0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21	5.1	97	23.7	228	55.6
	대학원 이상	16	9.2	29	16.8	115	66.5		비다문화 가족	141	11.4	217	17.5	752	60.6
재택근무 경험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	7.5	76	23.7	151	47.0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17	17.9	17	17.9	50	52.6
	대학원 이상	16	9.2	29	16.8	115	66.5		비한부모 가족	145	9.3	297	19.1	930	59.8
	대학원 이상	16	9.2	29	16.8	115	66.5		있음	33	6.0	86	15.6	378	68.6
재택근무 경험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	7.5	76	23.7	151	47.0	없음	없음	98	13.4	164	22.4	392	53.6
	대학원 이상	16	9.2	29	16.8	115	66.5		해당없음	31	8.4	64	17.4	210	57.1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스트레스 증가 이유

- 자녀의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이유는, '자녀의 학습기회와 학습의 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52.9%)가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직접 돌보는 학습지도 시간 증가'(28.4%)의 이유가 제시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의 발달 지연에 대한 의견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자녀의 언어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지연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2.5%임
- 특히, 가족서비스 이용경험이 있거나, 30대와 40대, 자영업자, 다문화가족, 그리고 재택근무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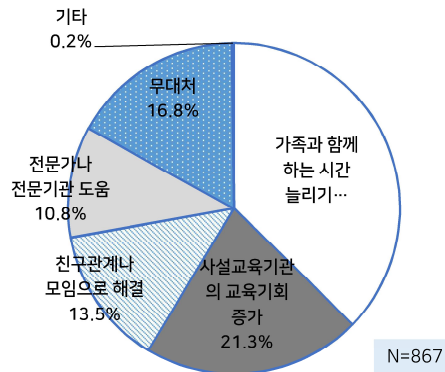
(빈도: 건 / 비율: %)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N=1650)	302	18.3	338	20.5	867	52.5										
가족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127	12.6	197	19.6	639	63.5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160	19.5	158	19.2	447	54.4	
	없음	175	27.2	141	21.9	228	35.5		임시근로자	18	22.0	16	19.5	43	52.4	
성별	남성	116	21.2	112	20.5	276	50.5	일용직 및 시간제/아르바이트	일용직 및 시간제/아르바이트	28	16.7	44	26.2	89	53.0	
	여성	186	16.9	226	20.5	591	53.6		자영업	14	11.4	27	22.0	73	59.3	
연령	20대	7	6.7	28	26.7	55	52.4	가구소득	학생	1	8.3	1	8.3	4	33.3	
	30대	58	14.0	89	21.4	250	60.2		전업주부	59	16.3	82	22.6	175	48.2	
	40대	107	19.7	105	19.3	314	57.7		무직	22	27.5	10	12.5	36	45.0	
	50대	72	23.8	59	19.5	126	41.6		하위층	60	13.4	93	20.8	255	57.0	
	60대 이상	58	20.5	57	20.1	122	43.1		중위층	156	19.5	162	20.3	421	52.6	
거주 가족 구성원	2인 가구 (부+자녀/모+자녀)	19	18.1	14	13.3	55	52.4	상위층	상위층	86	21.3	83	20.6	191	47.4	
	3인 가구 이상(부부+자녀)	257	18.9	284	20.9	713	52.5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44	10.7	87	21.2	256	62.4
	3인 가구 이상(부모 등 기타)	26	13.8	40	21.3	99	52.7			비다문화 가족	258	20.8	251	20.2	611	49.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	15.3	51	15.9	170	53.0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21	22.1	14	14.7	51	53.7	
	대학 및 대학교	230	19.9	242	20.9	602	52.1		재택 근무 경험	비한부모 가족	281	18.1	324	20.8	816	52.5
	대학원 이상	23	13.3	45	26.0	95	54.9			있음	82	14.9	104	18.9	339	61.5
								없음	159	21.8	161	22.0	343	46.9		
								해당없음	61	16.6	73	19.8	185	50.3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2. 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화 : 자녀의 발달 지연에 대한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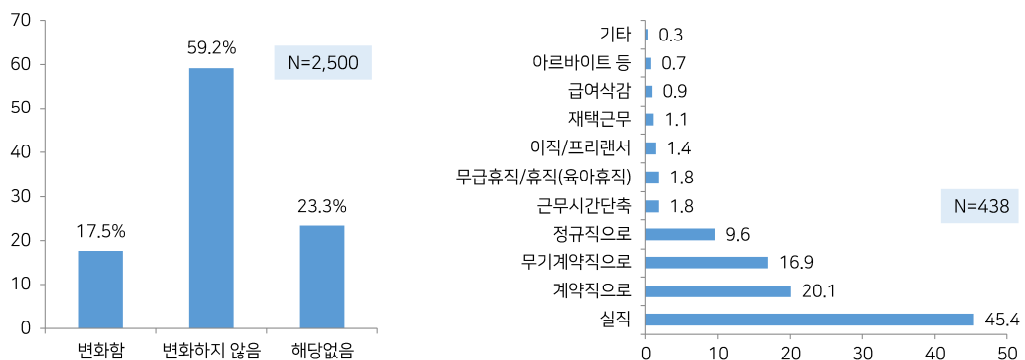
- 자녀의 언어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지연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기(37.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기회를 더 제공하는 경우(21.3%), 친구관계나 모임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13.5%) 순이며,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10.8% 수준임
- 특히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16.8%나 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3. 고용 및 근무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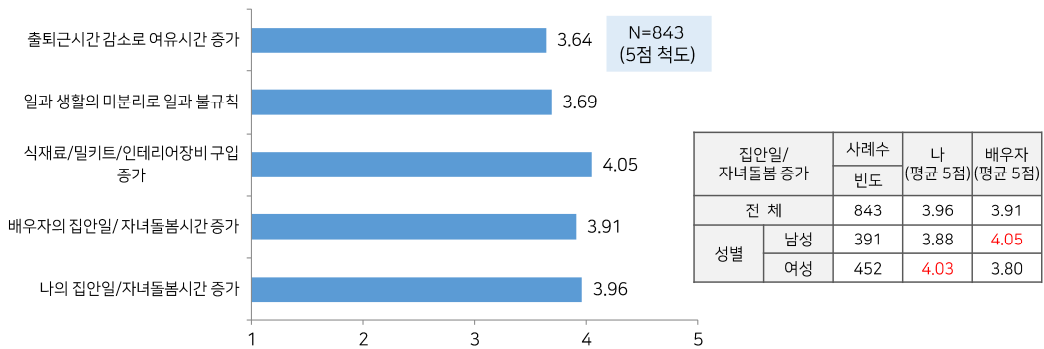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N=2,500)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및 근무형태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5%(N=438)임
- 이들 중 45.4%는 실직의 경험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20.1%), 또는 무기계약직(16.9%)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3. 고용 및 근무형태의 변화 : 재택근무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N=843),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식재료나 밀키트, 집안 인테리어 설비나 장비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소비가 늘어난 변화가 가장 높음
- 나의 집안일과 자녀돌봄시간 증가(3.96점)가 배우자의 증가(3.91)보다 높다고 인지하며, 출퇴근시간 감소로 여유시간이 증가했다는 생각(3.64점)은 보통 수준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여성의 집안일/자녀돌봄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함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4. 가족관계나 활동의 변화

- 전체 응답자(N=2,500) 중 가족관계나 활동의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55.3%)이나 가족 개별적 시간(52.4%)이 증가했다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됨. 상대적으로 야외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은 증가(33.2%) 경우 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38.4%)가 약간 많음
- 자녀와 조부모나 친척과의 왕래 기회는 감소했다는 비율은 64.4%임
-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증가한 경우(46.0%)도 그렇지 않은 경우(18.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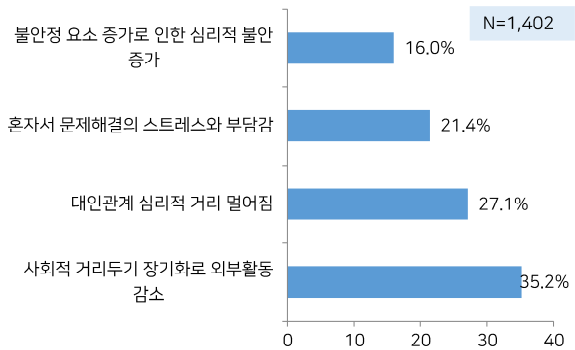
가족관계나 활동의 변화	'그렇다' 응답 비율	평균(5점 만점)
가족들의 개별 시간 증가	52.4%	3.52점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 증가	55.3%	3.58점
야외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증가	33.2%	2.93점
자녀와 조부모/친척 왕래 기회 감소	64.4%	3.86점
가족들에게 부정적 감정 표출 증가	46.0%	3.39점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5. 정서적 상태 변화와 그 이유

- 전체 응답자(N=2,500) 중 정서적 상태 변화에서 우울감이나 고독감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 이상임. 특히 불행하다는 느낌이 증가한 경우도 32.7%나 됨
- 그 이유로는 외부활동 감소(35.2%)와 대인관계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점(27.1%)가 가장 많음

정서적 상태 변화	'그렇다' 응답 비율	평균(5점 만점)
우울감 증가	42.3%	3.2점
고독감 증가	40.0%	3.15점
불행감 증가	32.7%	3.0점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6.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족서비스 : 선호도

- 향후, 위드 코로나시대에 가족센터의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돌봄지원(53.7%) > 문화프로그램(53.4%) > 가족역량강화지원(52.6%) 사업 순

항목	응답 비율(%)			평균(5점 만점)	평균(100점 환산)
	선호하지않음	보통	선호함		
교육프로그램	10.3	39.5	50.2	3.47점	61.7점
상담프로그램	11.0	40.1	48.9	3.47점	61.8점
문화프로그램	8.9	37.7	53.4	3.59점	64.8점
공동육아나눔터	13.0	37.8	49.2	3.47점	61.8점
가족역량강화지원	9.2	38.2	52.6	3.56점	64.1점
다문화특성화	14.6	41.6	43.8	3.38점	59.4점
한국어교육	14.9	40.9	44.2	3.39점	59.7점
아이돌봄지원	9.6	36.7	53.7	3.57점	64.3점

II.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6.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족서비스 : 희망 프로그램

-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족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은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으로는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가족원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제안이 많은 편임.
- 자녀교육과 가족교육, 놀이교육, 언어교육, 문화교육, 요리교육, 역사교육, SNS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제안도 많음
- 자녀놀이 체힘이나 놀이교육, 놀이키트제공 등에 대한 요구나 가족문화 및 여행지원에 대한 요구도 제안됨

서비스 제안	응답 비율(%)	서비스 제안	응답 비율(%)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개인 및 가족)	4.0	가족체험	0.6
돌봄 지원(유아, 어르신 등)	3.6	요리교육	0.5
자녀교육 및 가족교육	1.9	긴급자녀돌봄	0.3
가족문화 및 여행지원	2.9	자녀학습 및 자격증 교육 지원	0.5
가족관계증진 및 치료	0.9	1인가구 지원	0.3
건강관리 및 정보제공	2.3	문화교육	0.2
가사지원 및 식사제공	1.1	방문교육 및 방문상담 확대	0.3
자녀놀이체힘 및 놀이교육/놀이키트제공	2.3	소그룹 코칭/소모임지원	0.2
한국어 및 언어교육/통번역	1.4	SNS 교육	0.1
취업지원/경제적 지원	0.8	가정상담사	0.1
1대1멘토서비스	0.4	밀키트 제공	0.1
가정방문 교육	0.4	성인자녀 교육지원	0.1
비대면 서비스 확대/다양화	0.6	공동육아센터	0.1

I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결혼태도 : 전체

- '21년도 결혼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20년도 대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남
- 단, 결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연도별 큰 차이는 없지만 '21년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년도 보다 낮고 그렇다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빈도: 건 / 비율: % / 평균: 점)

항목	구분	사례수(건)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2020년	1,100	(351)	31.9	(749)	68.1	2.7
	2021년	1,766	331	18.7	1435	81.3	2.9
결혼은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	2020년	1,100	(492)	44.7	(608)	55.3	2.6
	2021년	1,766	627	35.5	1139	64.5	2.7
결혼은 나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준다	2020년	1,100	(262)	23.8	(838)	76.2	2.9
	2021년	1,766	407	23.0	1359	77.0	2.9
결혼은 나만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한다	2020년	1,100	(430)	39.1	(670)	60.9	2.7
	2021년	1,766	816	46.2	950	53.8	2.6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아깝다	2020년	1,100	(619)	56.3	(481)	43.7	2.4
	2021년	1,766	1117	63.3	649	36.7	2.3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부담스럽다	2020년	1,100	(536)	48.7	(564)	51.3	2.5
	2021년	1,766	1034	58.6	732	41.4	2.4
결혼은 나의 직업경력을 방해한다	2020년	1,100	(576)	52.4	(524)	47.6	2.4
	2021년	1,766	979	55.4	787	44.6	2.4
결혼이후 자녀출산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2020년	1,100	(515)	46.8	(585)	53.2	2.5
	2021년	1,766	972	55.0	794	45.0	2.4
결혼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2020년	1,100	(309)	28.1	(791)	71.9	2.9
	2021년	1,766	454	25.7	1312	74.3	2.9

I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2. 결혼여부에 대한 본인 의견

- '21년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5.3%)이 '20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62.3%)은 '20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빈도: 건 / 비율: % / 평균: 점)

구분	사례수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평균 (5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20년	1,100	(20)	1.8	(54)	4.9	(391)	35.5	(453)	41.2	(182)	16.5	-	-	3.7
2021년	1,766	16	0.9	77	4.4	532	30.1	763	43.2	338	19.1	40	2.3	3.8

I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3. 배우자와 가사 및 양육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생각

- "배우자와 가사 및 자녀양육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48.6%로, '20년에 비해 14.1% 높게 나타남'

(빈도: 건 / 비율: % / 평균: 점)

구분	사례수 (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20년	1,100	(64)	6.0	(302)	28.5	(627)	59.2	(66)	6.2	2.7
2021년	1,766	159	9.0	699	39.6	660	37.4	248	14.0	2.4

I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4. 가족지지에 대한 인식

- 가족지지에 대한 4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2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됨
- 4가지 항목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대부분 80%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남

(빈도: 건 / 비율: % / 평균: 점)

항목	구분	사례수 (건)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4점 만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우리가족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2020년	1100	(166)	15.1	(934)	84.9	3.0
	2021년	1766	368	20.8	1398	79.2	2.9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얻는다	2020년	1100	(212)	19.3	(888)	80.7	3.0
	2021년	1766	309	17.5	1457	82.5	3.0
나는 내 문제를 가족들과 의논할 수 있다	2020년	1100	(212)	19.3	(888)	80.7	3.0
	2021년	1766	354	20.0	1412	80.0	3.0
우리 가족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한다	2020년	1100	(235)	21.4	(935)	85.0	3.0
	2021년	1766	393	22.3	1489	84.3	3.1

I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5.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자녀 돌봄 스트레스

- 결혼에 대한 본인의 태도, 배우자와의 가사 및 양육 부담, 가족 지지 정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돌봄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함.

(평균: 점)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 부담 증가		평균(100점 만점)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	부정 응답자	80.3
	긍정 응답자	75.5
평소 배우자와 가사와 양육 부담이 공평하다	부정 응답자	75.9
	긍정 응답자	75.0
우리족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부정 응답자	79.9
	긍정 응답자	73.8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얻는다	부정 응답자	77.4
	긍정 응답자	74.6
나는 내 문제를 가족들과 의논할 수 있다	부정 응답자	77.7
	긍정 응답자	74.5
우리 가족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 한다.	부정 응답자	78.0
	긍정 응답자	74.6

3. 시사점 및 제언

48

I. 시사점 및 제언

1. 비대면/대면 서비스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코로나19 발생 후 비대면서비스 실시 및 확대, 각 서비스별 대면, 비대면, 대면과 비대면 혼용의 3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전체 가족서비스에서 70% 이상의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한 서비스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
→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혼용한 가족서비스 제공이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비스 이용자들은 비대면서비스의 확산에 대해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3.8점), 익명성(3.7점), 편리성(3.7점)' 등의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나, '집중의 어려움(3.4점), 기기 구비의 불편함(3.2점), 기기작동의 어려움(2.7점)'을 호소한 의견도 있음 * 5점 리커트척도
또한 비대면서비스로 인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기회가 줄어든다(3.7점)'는 의견도 있음
- 서비스별 서비스 진행방식 선호도
- 대면 서비스 : 아이돌봄(39.7%), 상담(34.2%), 다문화특성화(32.8%), 공동육아(31.5%), 가족역량(29.4%)
- 비대면서비스 : 문화(48.1%), 교육(46.1%), 한국어교육(42%)

➔ 위드코로나 시대 대면/비대면서비스 안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고도화 필요

- 비대면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비대면서비스 확대에 의해 기기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필요)
-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마련 및 대면/비대면 혼용 프로그램 다양화 등 안전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센터 비대면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축 및 센터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

49

I. 시사점 및 제언

2.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기획과 제공 필요 (1)

- 자녀 돌봄 영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녀의 언어발달/사회성 발달 지연 문제가 일어났다' 응답(52.5%) → (자녀 발달 지연에 대한 대처방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37.3%), 친구관계나 모임으로 해결(13.5%), 무대처(16.8%)
- 코로나 19 이후 가족생활 변화 영역에서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 증가'(52.4%)
-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도 : 아이돌봄지원(53.7%) > 문화프로그램(53.4%) > 가족역량강화지원(52.6%) 순으로 나타남
※ 작년 대비 문화프로그램 이용자 2.3배 증가

➡ 돌봄서비스 + 가족문화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간 융합 필요

-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 등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녀의 발달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여가 지원,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참가대상(가족구성원, 자녀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목표 설정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가족단위뿐만 아니라 부모 연령 등 다양한 동질그룹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사회활동 경험 기회 보완

I. 시사점 및 제언

2.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기획과 제공 필요 (2)

- 자녀돌봄 영역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자녀 돌봄문제 대처 방안 : 직접돌봄(60.4%)
-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한 영역 : '학습지도(22.2%), 정서적지지(12%), 생활습관지도(11.2%)' 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 온라인 학습에 대한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59.4%)
- 이유 : 학습기회와 질 불만(52.9%), 직접 지도 시간 증가(28.4%) 등
- 전년 대비 상담프로그램 이용자(3.3배) 증가, 교육프로그램 이용자(1.6배) 증가
위드코로나 시대 희망 프로그램에서 개인/가족 상담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선호하는 서비스 진행방식
- (상담) : 전화상담(28%), 대면상담(27.4%), 비대면 화상상담(22.6%), 이메일/온라인게시판(16.9%) 등
- (교육) : 온라인교육콘텐츠제공(37.8%), 실시간온라인교육(25.5%), 5위미만 집합강의(22%), 집합교육(14.5%)

➡ 돌봄서비스 + 교육/상담 프로그램 간 융합 제안

- 자녀를 대상으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양육자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예) 자녀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부모교육, 양육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등
-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 증가 추세, 자녀돌봄 관련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 선호하는 서비스 진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녀 돌봄 지원 관련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필요

I. 시사점 및 제언

3.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주목(코로나19 초기와 비교)

- 결혼에 대한 태도 전년 대비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태도 증가: 결혼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13.2% ↑),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9.2% ↑) 등
 - 부정적인 태도 감소: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부담스럽다(9.9% ↓), 결혼은 나만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한다(7.0% ↓),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아깝다(7.0% ↓) 등
-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소폭 높게 나타남
 - '하는 편이 좋다' 소폭 증가: '20년 57.7% → '21년 62.3% (4.6% ↑)
 -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소폭 감소: '20년 6.7% → '21년 5.3% (1.4% ↓)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태도)
 - '결혼 이후 출산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남: '20년 53.2% → '21년 45.0% (8.2% ↓)
 - '결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여전히 높음: '20년 71.9% → '21년 74.3% (2.4% ↑)
-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가족 중심의 일상생활이 강조됨에 따라,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중요성 및 가족관계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의 충족 등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경제적인 상황,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가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족관계 지원 필요

-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한 가족 내 긍정적인 관계경험 기회 제공 → 교육적 접근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가족인식 개선 방안 모색, 가족관계 개선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가능

I. 시사점 및 제언

4. 향후 가족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가족생활 및 가족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
 - 가족간 물리적(공간), 심리적(정서적 유대) 공유 영역 증가
 - 재택근무, 온라인 등교 등 비대면 환경의 급격한 확산
 - 친구모임, 취미생활 등 사회적 외부 활동 축소로 인한 개인의 일상 변화
-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변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및 비대면 환경 적응에 대한 개인/가족 간 편차 발생
 - 가족서비스 이용 목적 변화
 -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위기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가족상담 등 가족갈등 지원이 필요해서 등
 - 가족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
 - 비대면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홀로 있는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우울감 등으로 인한 개인 심리상담 수요 증가, 노인 돌봄, 상담/교육 영역에서 가족단위 프로그램, SNS 등 비대면 환경 관련 교육 수요 발생

➔ '위드코로나 시대'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가족서비스 설계 필요

-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족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내용 역시 다양화됨 → 예) 가구별 특성(다문화·다자녀·노인가구·자녀 연령, 재택근무 여부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 및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가족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 및 효용성 제고 필요
- 개인 및 가족의 심리 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강화
예) 개인상담 및 자조모임,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심리지원 등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토론 1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변화 및 돌봄서비스 방향

김 옥 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토론 1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변화 및 돌봄서비스 방향

■ 김옥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족생활에 대한 변화, 그에 맞춘 가족 서비스 방향에 대한 윤소영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발제 내용에 이어 사회적 위기 상황 때마다 겪게 되는 사적 돌봄의 강화, 특히 여성의 돌봄노동으로의 회귀에 대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위험의 광범위한 확산과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그동안 산업사회의 위험 즉 빈곤, 질병, 실업, 노동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 등을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 한부모, 이주민, 저소득층)는 경제적 빈곤과 함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양육 및 부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주민보다 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민들이 이주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통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정주민과 이주민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 하락을 동반하게 됩니다.

더욱이 한국의 삶의 질은 경제적인 수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가 2020년에 발표한 삶의 질(BLI: Better Life Index) 지수에서 40개 조사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월부터 급격하게 확산되고 2021년에 이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멈춤은 사회 곳곳의 멈춤으로 이어졌고, 보육 및 교육기관의 휴원 및 휴교로 인한 학습의 격차는 물론 학습기회의 박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멈춤은 노동유연화로 인한 실직을 증가시켰고, 그로 인한 경제적 수입 감소는 가족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파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발과 서비스 제공 속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의 발생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극복은 고스라니 가족의 몫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 휴교 기간 동안 아이를 부모님, 친척 등에게 맡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긴급돌봄을 활용하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약 절반, 특별재난 지역 41.8% 그리고 취약가구의 46.9%(최윤경, 2020)가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급진적인 산업화의 흐름에 따라 가정의 아동 돌봄을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정책(일·가정 양립지원정책, 보육정책, 육아지원정책)과 지역에서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기관(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긴급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돌봄) 등을 통해 가정 내 아동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아동 돌봄에 대한 공공정책 개발, 각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노력은 각 가정의 양육자들의 아동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은 물론 공적돌봄시스템의 이용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공적 돌봄의 멈춤은 우리 사회의 돌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간의 사회적 요구에 급하게 진행되어온 공적돌봄체계의 정착을 위한 기본 행정지침 및 운영의 미흡은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체계의 마비를 가져왔고, 그로 인한 피해는 가족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돌봄공백과 돌봄 과중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라는 사회적 위험은 가족생활과 가족관계, 사회적 위험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일상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대한 촉구와 서비스 욕구는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연구에서도 윤소영 박사님이 발표하셨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학교 등교의 중단, 재택근무, 실직 등의 증가는 물리적으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습니다. 대면과 소통 시간의 증가는 가족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19라는 신종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경제적인 수입 감소, 자녀 학습지도와 식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가사와 돌봄 부담의 증가, 특히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 부담의 불평등은 양육자 중 여성에게 우울 및 생활스트레스의 증가요인으로 작용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가족의 경우, 가족 간 갈등과 폭력, 이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진미정 외 2020).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전체 보호자 중 약 73.2%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양육 스트레스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곧 아동학대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대비 2020년 양육자의 학령기 아동 체벌 경험은 23.9%, 미취학아동 내에서는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봉주 외, 2020). 더욱이 코로나19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문화가정의 삶은 내국인보다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에 주변인으로서 위치한 여성, 특히 학령기와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실직 및 일자리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성양육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퇴출 위기와 실직을 경험하였으며, 근로현장으로의 복귀 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이 필요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공적돌봄의 멈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암묵적인 돌봄의 부양자로 압박을 받으며 일과 돌봄이 병행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멈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지향하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들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공적돌봄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여성을 다시금 자녀와 가족돌봄의 주체자로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공고화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공적 돌봄 초창기에 여성양육자들은 친인척 돌봄을 통해 사적 돌봄을 선택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적 돌봄대체 수단은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일과 돌봄의 병행이 불가능한 노동조건 역시 여성의 일자리 멈춤을 가속화하게 합니다. 이에 근본적인 성 불평등한 돌봄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 개발과 노동환경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전방위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경제적 영향은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 미쳐 여성의 일자리 감소와 가정의 양육 및 돌봄 주체로서의 회귀를 촉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인식은 돌봄의 주체를 여성 그리고 여성의 일로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당당한 노동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일과 돌봄 양립, 돌봄의 성평등한 분배가 가능한 공공정책 개발과 지원, 사회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경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돌봄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자로서의 양육자를 위한 일과 돌봄의 병행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발굴과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을 통해 돌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돌봄제도 이용을 통해 일자리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실효성 높은 공공정책 시행과 노동시장의 근무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적 내용의 정비와 민간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안전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부처별로 분절화된 돌봄시스템과 지역사회 민간돌봄기관 간 분리된 돌봄시스템 구축은 돌봄서비스의 중복,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해당기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서비스의 질 하락과

돌봄대상자의 발굴 미비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절된 돌봄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와 지자체별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과 대상자 누락방지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양육자와 돌봄 아동의 욕구충족을 통한 돌봄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히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기간의 안정성, 서비스 범위의 포괄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며,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엇보다 자원의 한계성을 지닌 기관은 지역사회복지 및 민간기관과 적극적인 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기관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정부와 지자체 행정기관은 현장기관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예산지원, 현장에서 서비스 진행이 수월하도록 행정지침 및 규정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운영 구축을 위한 환경정비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의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 활동의 전환과 더불어 인공지능로봇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교 수업과 재택근무 등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현실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점 또한 많아질 수 있겠지만, 특히 저소득층과 인터넷 등의 기반환경이 불안정한 지역의 경우 학습과 노동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학습의 격차와 노동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게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상의 정보 과잉은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노출을 막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노출은 거의 모든 시간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교육,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동들이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경로, 유통의 주체,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처 방안을 위한 교육적 해결책을 긴급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돌봄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과 성평등한 돌봄참여의 인식개선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돌봄의 문제는 특히 사회적 위기상황 때 마다 개인, 그리고 가족의 영역으로 침범 및 회귀합니다. 돌봄이란 국가, 지역사회, 국민 개개인 모두의 참여와 가정 내 성별 구분을 벗어난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남성의 돌봄 참여에 대한 공공과 민간 사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돌봄의 유연화를 위한 유연근무제의 이용 증진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짧은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Ⅰ 참고 문헌

- Ⅰ 김지현, & 최영준. (2021). 코로나 19 시기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남성 가사분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0), 101-132.
http://www.welfarestate.re.kr/beluxe_dzQZ85/7345
- Ⅰ 진미정, 고선강, 박정윤. (2021). 코로나 19시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 및 비대면 프로그램 지속 의향 영향 요인 탐색: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9(1): 97-111.
- Ⅰ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 Ⅰ 이봉주, 장희선, 선우진희, 길보라.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 굿네이버스.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토론 2

코로나19 이후 상담 서비스 운영 방향

한 은 주 센터장 강북구 가족센터

토론 2

코로나19 이후 상담 서비스 운영 방향

■ 한은주 센터장 (강북구 가족센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센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지 햇수로 2년째다. 그동안 실무자들은 온라인 화상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기 시작하였고, 서비스 대상자들 역시 센터 내방에 따른 시간적 비용을 줄이고, 좀 더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다 반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대다수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서비스 제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좀 더 진화된 스킬들을 습득해야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는 실무자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으며, 좀 더 빠른 기술과 장비를 습득한 센터와 이를 기획하는 실무자 그리고 전달하는 전문가들의 역량과 콘텐츠 등에 따라 서비스 질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본 연구과제인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 조사”는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입장에서 코로나19 이후 각 사업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지에 대해 고려하게 해주는 시의적절한 주제라 여긴다. 특히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 1년 동안 가족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로 “가족상담 등 가족갈등 지원이 필요해서”가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 여긴다. 이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한 만큼, “가족들에게 부정적 감정 표출” 또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희망하는 가족서비스로 1순위가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개인 및 가족)”으로 나타나 상담서비스 제공이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팬데믹 사회에서 시급하게 비대면으로 전환한 교육 및 문화사업과 다르게 끝까지 대면을 고수했던 상담 서비스 역시 결국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비대면과 대면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센터들이 대다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대면으로의 상담 진행이 중지되었을 때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갈등이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가족(부부 등)에게 제공된 전화상담 및 화상상담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는데 매우 절실한 방법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센터 실무자와 상담자 그리고 내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비대면 상담을 할 때의 환경 구축이나 내담자가 어떤 세팅된 환경에서 상담을 들어와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상담이 진행된 경우 상담과정의 안전성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화상상담이나 전화상담을 거부한 내담자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관리나 대처도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위드 코로나 상황이 도래되고,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2년동안 경험한 비대면 상담은 사라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 앞으로 비대면 상담은 면접상담 신청 시 선택사항(대면 vs 비대면)이 될 수 있으며, 회기별로 적절하게 혼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센터는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비대면 상담이 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족상담실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비대면 상담 시 지켜야 할 규칙 등이 적힌 비대면 상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담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상담사들 역시 비대면 상담을 통한 구조화 작업에 있어 또 다른 전문적 역량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무자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규정 및 상담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면으로 진행된 상담과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담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결과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져, 어떤 경우 가장 효과성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도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상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또한 비대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례들도 꽤 많다. 예를 들어, 폭력이 의심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온라인 진행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 등은 대면상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가족상담사들 역시 상담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렵게 결심하고 상담서비스를 신청한 개인 또는 가족이 매 회기마다 센터까지 오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담실에 들어올 때의 자세와 태도, 표정이 어떠한지 등은 모두 상담사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담실 내에서의 작업을 통한 접촉과 참만남 역시 상담사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내담자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담서비스 방식의 변화와 도전 속에 우리는 어떤 운영 방법이 맞고, 틀리다 라는 판단을 하기 보다는 내담자들이 본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선택하고, 이에 따른 전문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 희망하는 가족지원서비스로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가족상담의 중심기관은 가족센터다’ 라는 인식을 보다 강화시키고, 가족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고유성을 보다 확고히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외로움과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일 먼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적응상의 문제들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악화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일반 대중들이 상담서비스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가족상담을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센터 내 여러 가지 교육과 문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함께 복합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도 고려해 봐야 한다. 센터가 통합운영이 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육, 상담, 문화라는 영역으로 개별화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강북구 센터의 경우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모두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보다 쉽게 상담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 담당자가 아닌 다른 업무의 담당자 역시 매우 민감하게 가족을 체크하고, 선별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과 연결짓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위축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센터 내에서 위축된 전문상담사는 상담 서비스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여전히 열악한 상담사들의 처우는 가족센터에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토론 3

코로나19 이후 교육/문화 서비스 수요 및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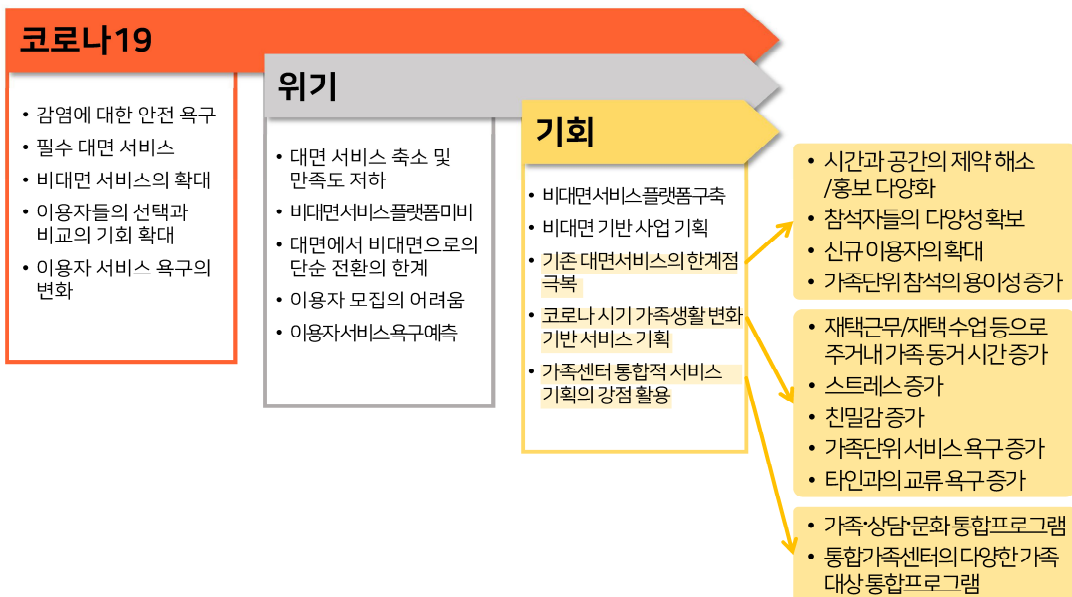
윤 성 은 센터장 구리시 가족센터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토론문

코로나19 이후 교육/문화 서비스 수요 및 운영 사례

구리시 가족센터장 윤 성 은

코로나 19 이후 센터사업방향성



행복한가족 “맛벌이 Home Global Tour”



썰카롱을 통한 세계 국기 만들기
와 국기 유래 알기



食 문화 역사와 세계요리 만들기



퍼즐을 통한 세계지도 만들기



전통집 만들기
와 역사교육

사업 목적

코로나 19 전염성 질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 교육적 경험 부재와 공교육의 부재가 겹쳐 자녀의 교육성취도가 낮고 가족문화 형성의 저하가 나타남 이에 맛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대상가족 구리시 거주 맛벌이 가족 (한부모가족 포함)

접수방법 네이버 폼 활용 (맛벌이 증빙서류 첨부)

진행일 7월 매주 토요일 / 9:30 ~ 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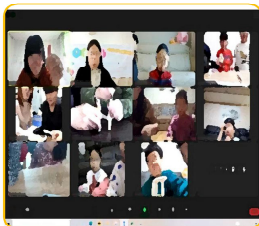
진행장소 본 센터 및 각 가정

수업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물품전달 택배를 통한 비대면 배달 방식 진행

기 타 매 회기별 우수가족 선발을 통한 개별 가족캠프진행

코로나 19 가사스트레스 해소 “랜선종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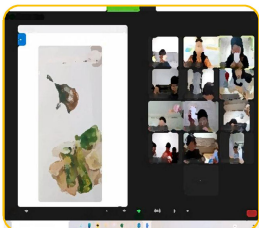
자연물을 활용한 진레놀이 만들기



랜선종파티 재료



도시락 수다방



숲/동물 생태카드 놀이 및 자연물 꾸미기

사업 목적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부모의 재택근무, 자녀의 온라인 학습 등 가정내 활동영역이 많아져 양육과 가사의 어려움으로 주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통계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과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문화, 교육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고자 함

대상가족 구리시 거주 부모와 자녀

접수방법 네이버 폼 활용

진행일 1월 25,26,27,28일 (총4회기) / 9:30 ~ 13:30

진행장소 본 센터 및 각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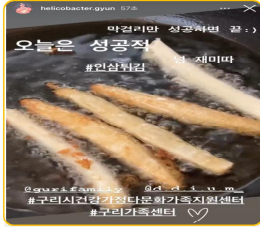
수업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물품전달 택배를 통한 비대면 배달 방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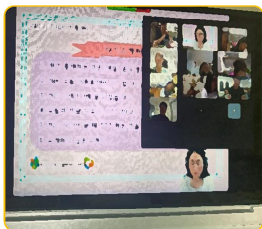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



막걸리 만들기 후기



막걸리 만들기 후기



네트워크 자기소개



결혼이민자 강사 활용

사업명 배움교실 도란도란 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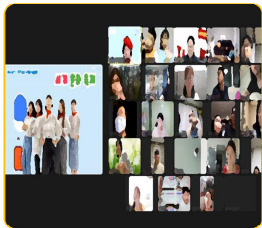
진행일시 2021.04.-2021.10.

대상 구리시 거주, 구리시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내외국인(성인), (예비 1인가구, 1인가구, 다문화성인지녀, 남편, 커플 등 참여 구성의 다양화)

진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소통
- 결혼이민자 강사를 활용한 취미생활 배움활동으로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내용 내외국인이 함께 취미생활을 배우고, 공유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마크라메, 필리핀 전통요리배우기)
- 아시아권의 공예활동 배움(라탄공예)
- 막걸리배우기 및 우리재료를 활용한 안주 만들기 배움
- 내 친구를 위한 액세서리만들기 배움 활동

2021 세계문화축제



세계문화체험
<세계나라사람 다 만나자>



방구석 라이브 랜선 투어

사업명 세계문화축제

진행일시 2021.10.5.-2021.10.9

대상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 약 700명 참여

진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내용 4개의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능한 문화체험 및 교육 참여, 축제 프로그램/ 구리시 세실다실 협동조합 결혼이민자 강사를 활용한 국가별 문화체험 및 교육활동

- 1) 세계문화체험 <세계나라사람 다 만나자>
- 중국탕후루, 일본 전통 화과자, 세계매듭, 아프리카 칼럼바 등
- 2) <기내식과 함께하는> 방구석 라이브 랜선 투어
- 스페인 바르셀로나, 런던 영국박물관
- 3) <이 구역의 패션왕은 나> 패션쇼
- 온라인(키트와 가족사진을 활용한 온라인 패션쇼 인증)
- 오프라인(다가온-문화체험관을 활용한 선예약제 체험관 운영)
- 4) <선물받아가세요> 인증샷 이벤트/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
- 세계문화축제 참여사진 인증
- 센터 홍보지 인증
- 센터 프로그램 참여 인증



이 구역의 패션왕은 나-온라인



<선물받아가세요> 인증샷 이벤트

2021 우리가 그린 그린뉴딜 구리



가족팻말만들기



페플라스틱 뚜껑 수거함 설치



EM흙공 생태습지 정화활동



가족사랑의 날-페스티로폼 활용 조명

사업명 구리시 가족센터 '우리가 그린 그린뉴딜 구리'

진행일시 2021.1.-현재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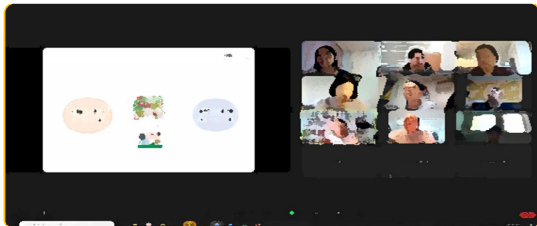
대상 구리시민가족, 모두가족봉사단

진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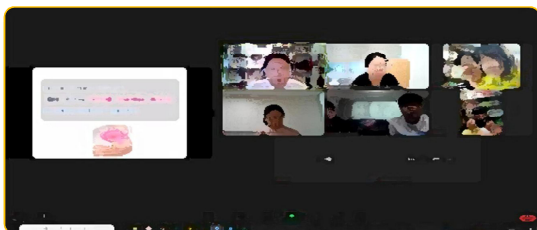
내용 구리시정 업무와 함께 '우리가 그린 그린뉴딜 구리' 슬로건으로 구리시민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

- 1) 가족사랑의 날
 - 가족들이 함께일상 속 실천가능한 그린뉴딜, 제로웨이스트 실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천연세정제, 삼푸바 만들기, 페스티로폼을 활용한 조명만들기, EM용액과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천연세제만들기, 남은 원목 자투리를 활용한 액자만들기 등)
- 2) 모두가족봉사단
 - 생활 속 환경 약속 실천, 다양한 가족과 지역이 함께 하는 그린뉴딜
 - EM흙공 생태습지 정화활동
 - 업사이클링 물품 제작 및 지역사회 나눔활동-양말목 티코스터,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생활용품
- 3) 그린뉴딜캠페인
 - 다양한 대상이 함께 하는 생활 속 실천 환경 캠페인
 - 가족팻말만들기-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족 다짐,
 - 가정 내 분리배출 인증
 - 쓰담달리기챌린지-거주지 인근 쓰레기 줍기, 도보 실천
 - 슬기로운 지구생활-플라스틱뚜껑 업사이클링, 키팅으로 재생산
 - 이지그린사업-지역기관연계 환경실천 및 나눔활동

부모자녀의사소통교육-여름방학 맞이 부모교육 특강 "TC기질 및 성격검사"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1회기



유아동 자녀를 둔 부모교육 1, 2회기

사업 목적

코로나 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상향으로 여름방학 맞이함에 따라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남을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 자녀와 부모 기질을 알고 올바르게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제공, 부모자녀 긍정적인 관계 향상

대상가족 구리시 거주 유아동기,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접수방법 네이버 폼 활용

진행일 1)8/7토 /9:30 ~ 12:30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2)8/14토 /9:30 ~ 12:30 유아동 자녀를 둔 부모1
3)8/21토 /9:30 ~ 12:30 유아동 자녀를 둔 부모2

진행장소 본 센터 및 각 가정

수업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TC기질 및 성격검사 활용

기타 참여자 중 상담이 필요한 가정 센터상담연계(1가정)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발행일 | 2021년 11월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 김금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4~6층

전 화 | (02) 3479-7600

팩 스 | (02) 3479-7798

홈페이지 | www.kihf.or.kr

기획·편집 | 사업기획부

수행기관 | (주)유앤아이컴

인쇄처 | 삼원그래픽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주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후원



여성가족부